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그대



부처님께 드리는 참된 공양

가장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다. 특히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빙자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생각하면 새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다짐이 필요하다. 우다나에 나오는 내용은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바로 내 뒤에 서서 내 발자국을 따라 다닌다고 해도, 그가 마음속이 탐욕스럽고 증오심을 품었으며, 악의에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하며, 마음이 신란하여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비구들이여, 설사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니라.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니라 법을

부처님은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사상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상가란 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숭상한다.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종교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간들을 심판하는 심판자, 혹은 절대자와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교가가 아니었다. 인간의 면모를 가지고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의 이성을 개발하고, 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실천공행하는 교사적인 역할의 종교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법이란 다르마(dharma)란 언어를 번역한 것인데 존재라는 의미와 정의, 법칙, 가르침이란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삼보의 하나를 법보라 하는 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의 결론과 율전을 비롯하여 후대에 이룩된 논서까지 포함되고 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경전의 곳곳에 나타나 있다. <<잡아함경>> 권30

진솔·겸허하게 법 실천하는 것 보시·지계 인간사회 윤리규범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실 이상의 인용문은 나 자신을 위한 법문처럼 들리기에 간절함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만든다. 수로나라국으로 포교를 떠난 우바리 존자도 부처님을 그리워하자 상기 인용문과 같은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온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진솔하고 겸허하게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을 숙연하게 만든다.

북아원에서 다섯 비구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기 시작 했던 그때의 법문 내용은 4제와 보시, 지계, 생전설이었다. 4제란 일체의 존재들은 모두 불만과 불안으로 충만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변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과 불안은 극복하고 행복과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보시와 지계는 생활 속에서 타인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를 가르쳐 주는 사회윤리이기도 하다. 어떠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지녀야 하는지 알려 주기에 법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의 837경에서는 사람을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고 말한다.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면 다섯 가지 허물이 생긴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 대중의 비난을 받으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계율을 범하고 어기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는 사람을 거리에서 만나면 도망을 찾지 않게 된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속세로 돌아가면 실망하게 된다. 자신이 믿는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실망하게 된다. 따라서 절을 찾지도, 대중을 공경하지도, 법을 들지도 않고 선행을 등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무상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지만 법은 무상의 법칙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잡아함경>> 제46 1238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법은 현재에서 모든 번뇌를 떠나 사절을 기다리지 않고 통달하여 밝게 보며, 자기를 인연으로 스스로 깨달아 그 법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중생의 좋은 벗이 되어 중생을 생노 병사와 우리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며,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뇌를 벗어나게 하며, 보고 통달하여 스스로 깨달아 증득하게 합니다." 법의 실천과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경기도 부천시 보운산(寶雲山) 아래 지리 좁은 석왕사를 찾아갔을 때, 고산 스님은 점심 공양을 위해 방문을 나서는 중이었다. 그런데 공양을 하러 가신다면서 스님은 왼손에 아홉 개의 커다란 나무 구슬로 만든 단주를 쥐고 계셨다.

"스님, 항상 그렇게 단주를 들고 다니십니까?"
"단주가 어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우반 존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전생에 소로 살다가 죽어서 인간이 된 분이었는데, 전생의 업으로 항상 입을 우물우물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왜 소가 여물 먹을 때 우물우물 하면서 먹었어.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욕을 하거나 불평을 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다. 부처님께서 그런 우반 존자를 위해 처음으로 단주염주를 만드셨습다. 단주를 돌리고 있으면, 누가 봐도 열광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까하면서 우반 존자에게 항상 단주를 손에서 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단주가 생겨났군요?"
"처음에 아홉 개의 구슬로 만들었는데, 오는 것은 숫자의 중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중극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구하려는 뜻이지요. 아홉 개의 구슬로 만들었던 단주가 이후에 108개, 1080개, 3000개 등으로 늘어났습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오른쪽으로 법을 먹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왼손으로 염주를 돌리라고 하셨습다. 균형을 이루도록 말이예요."

한번 생각하면 종자 생기고
두번 생각하면 싹이 트고
세번 생각하면 열매 거둬

고산 스님은 매월 초 여드레 정기법회 때마다 이곳 석왕사를 찾아 법문을 하신다. 고산 스님은 석왕사의 창건주다.

"한때는 서울에 포교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서울은 내가 아니라도 지을 사람 많으니까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보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곳 부천이었습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세가 가장 센 곳이 부천입니다. 여기에 신앙촌을 비롯해서 20여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들을 좋아하려고 적극적으로 포교했지요. 처음에 나한테 전도하러 왔다가 지금은 열렬한 불교 포교사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님은 부천에 불교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맨 먼저 구약 신약성서를 통째로 다 외워 버렸다. 그리고 불교의 뜻대로 그것을 오류를 전도사들에게 알려주며, 스스로 생각하게 했다. 자신들과 달리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취한 스님께 K(매)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고산 스님께 기자가 며칠 전 꾸었던 꿈 이야기를 했다.

"꿈 속에서 스님을 만나러 여러 오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속시간을 훨씬 넘겨서야 도착했는데, उस이 된 저에게 스님께서 이것 저것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꿈에서 깨어났어요. 무슨 뜻이 있는 지 한참을 생각해봤습니다."

잠, 화려한 꿈도 꾸었네. 꿈은 주사야꿈이라.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반영된 겉이다. 자기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고산스님은?

3개사찰 창건 포교앞장... 즉흥 법문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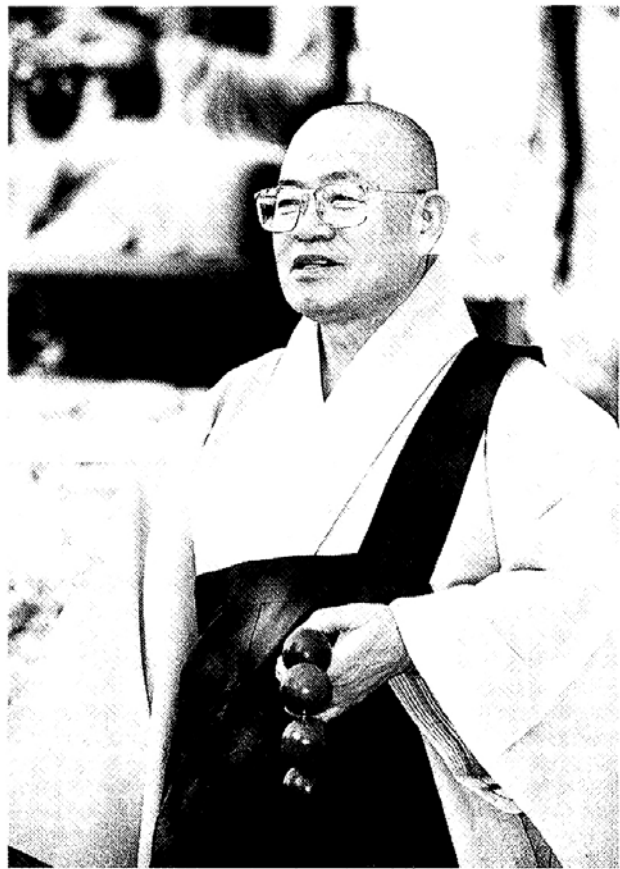
고산스님은 부천 석왕사 외에도 부산 해운정사, 통영 앞바다의 연화도 연화정사 등을 창건해 포교와 수행에 앞장서었다.

스님은 1948년 밤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61년 고봉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았다. 재방선원을 다니며 참선 수행 하여, 선교일어(禪教一如)의 경지를 이루었다. 69년~75년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78년 조계종 제5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스님은 즉흥 법문으로도 유명한데, 그 모두가 수행의 힘이다. 98년~99년 조계종 총무원장직을 수행 할

때에도 각종 행사 직전에 비서진에서 써온 원고를 뒤로 하고, 즉석에서 말씀 하실 정도였다. 스님은 "미리 써 둔 것을 읽으려면 지푸 대들거려서, 그리고 행사 전에 한번 읽어라 봐야 하는데 항상 일정에 쫓기다 보니 원고한번 제대로 검토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할란다" 하고는 내 생각대로 이야기 하곤 했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부산 해운정사에 주로 주석하시면서, 석왕사와 연화정사, 쌍계사 등지를 오가며 여전히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계신다.



고산스님은 이대를 가진 심자어 공양하며 갈때에도 항상 단주를 지니고 다니신다.

거다에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이뤄진다고 해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일체유심조라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첫 번째 생각하면 종자가 마련되고, 두 번째 생각하면 싹이 트고, 세 번째 생각하면 열매를 거둔다 하셨습니다. 기자 선생이 나 만나러 오려는 생각이 그런 꿈을 꾸었나 보요. 그래서 지금이 자리에 있지 않소 하려하..."

"많은 이들이 저처럼 꿈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허해서일까요. 게다가 세상이 점점 물질만을 추구하다 보니, 좋은 꿈을 꾸었다 싶으면 곧바로 복권을 사고

요 요즘, 복권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끔은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만 바라가지, 허영심을 가지면 인생을 망칩니다. 복권이나 증권으로 큰 돈을 얻으려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주는 기쁨은 보살 복이

초발
가
고
주는기
보살심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사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탐개로 하여(한박스 60부)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기록, 동의보감) 기록

-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 둘째, 천머리를 감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예비 및 기록을 돈여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꿀잠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쇠송유에 마가목 약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목,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성당원의 원종태고 보우국사 일반사지 소철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식약부 지정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입니다.

시즈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武道(禪기공) 수련회

선무도 大金剛門 총본원 골굴사에서 건강과 수행을 위한 수련회가 년중 항상 열려 있습니다.

- 특성과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의 안성교육과 심신의 건강을 도와주는 대안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의 선생님께서 추천한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단, 1월과 8월은 일반학생 수련회관계로 받지 않습니다.)
- 무에나 기공 수련에 관심이 많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 (출가행자는 전액무료이며, 대학진학<불교학, 체육학>까지 보장 됩니다.)
-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심신을 휴양하고 싶은 분 (비만증 학생인 경우 1달에 8kg까지 빠집니다.)
- 불교학연구회, 수행단체 각학과, 체육, 예술, 사회단체, 기업체의 위탁연수 및 출강이 가능합니다.
- 인근 도시의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주말 수련회(금,토,일)가 1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주관광을 겸한 선무도 체험을 원하는 수악여행단의 단시간 연수를 예약 가능합니다. (사찰관광 및 선무도수련, 약 2시간)
- 외국인 관광문화 체험단 일정자 많으므로 단체연수인 경우 꼭 예약이 필요합니다.
- 본 협회 산하에 약 20여개소의 국내지점, 지부와 4개국에 해외 지점이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에 교양과목 및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본 협회는 현재 학교법인 '선무도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무도'는 본 협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명칭(상표등록 NO 제022354호)이므로 유사단체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www.golgulsa.com / sunmudo.com 전 화 054)744-1689, 745-0246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21세기 암 치료 혁명

대체 요법의 첨단을 달리는 아라비늑실란

이제 '서양 의학으로는 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대체 요법이다. 본사의 김수자인 의사 오비즈 이렇게 말한다. "현재 전미(全美) 125개의 대학의 의학부 가운데 실로 75개 대학이 대체 요법 부문을 신설하고 있다. 그 흐름은 성년 파도파도 같다. 일본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대체 요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합리적,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는 아라비늑실란에 의해 그런 혁신이 도모되었다."

▶ 병원치료인 수술요법 화학요법(항암제), 호르몬요법, 방사선요법 등의 치료를 한후 상기 대체요법을한 90명의 환자에 대해 2-5년의 재발확률을 관찰한 결과 현재 86명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면역요법의 핵심적 열쇠라고 할 수 있는 NK세포(면역세포)의 활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발된 4명의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김수자 오비즈 로이치 - 의학박사
저자 나가사와 오사무 - 의료 저널리스트
편역자 황성주 - 의학박사

암 치료 현장의 의사들이 증언한 50여 명의 임상 사례

이치비시 클리닉의 이치비시 겐지치 원장
유방암 4기로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아라비늑실란 3g을 투여한 지 한 달 만에 NK세포 활성이 2배로 상승했고 종양 지표는 1/3로 떨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또한 '만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하루 3g의 아라비늑실란을 투여하면서 3주 후에 백혈구 검사를 해보니 6만 5천에 달하던 수치가 정상 범위인 5천까지 내려오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

오모리 내과 일렉키 클리닉 오모리 원장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몇 년 뒤에 간으로 전이된 60대 환자는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라비늑실란을 투여한 지 일주일 만에 종양 지표가 내려갔고 그 뒤 암의 크기도 상당히 줄어들어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은 모두 저절로 낫아 버렸다.

호시노키 후생 연금 병원의 보우지마 도우리 박사
폐결핵을 앓으면서 폐암 3기인 64세의 남성이 수술 후에 빠져지 않아 전이되었다. 이 환자는 몸이 너무 약해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아라비늑실란만을 투여했는데 6개월정도 후에는 몸중이 거의 사라져서 암 세포의 크기도 줄어들었다. 물론 종양 지표인 ICTP도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 구입 및 상담문의 (代) 545-7536 ■ 가격 8,000원